

2009년 대기업相生 비전 하이라이트

2009년을 장식할 기업의 경영화두는 '녹색성장'과 '상생'이다. 그래서 연말연시부터 이와 관련된 계획들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LG는 유망협력사에 유상증자를 지원하고, 포스코는 투자 규모를 사상 최대인 6조 원으로 늘린다. 현대·기아차는 협력업체 상생펀드를 300억 조성하고 두산은 3,450억 규모의 네트워크 론을 시행하는 등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꾸준한 선물보따리를 풀었다. 2009년 국내 대기업 상생을 위한 비전을 한자리에 모아봤다.

글 편집부

LG, 유망협력사에 유상증자 지원...원자재 공동구매
LG는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차별화된 새로운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 신 모델은 크게 세 항목인데 △유상증자 참여 등 협력회사에 대한 직접투자 △협력회사와 원재료·부품 공동구매 △협력회사에 확실한 미래 투자 이정표 제시로 요약된다.

LG전자는 지난해 초부터 철판, 레진(Resin) 등 원자재 가격 상승 폭이 큰 협력회사들의 주요 원재료는 필요한 물량을 취합한 뒤 공동구매해 협력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원자재 공동구매 규모는 연간 2조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협력회사들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개별로 구매할 때보다 싼 가격으로 원재료와 부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LG 전자와 원재료 가격의 투명한 공유가 가능해져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제품 단가에도 가격 상승분을 즉시 반영하도록 했다. LG전자를 비롯해 LG화학, LG이노텍, LG생활건강, LG CNS, LG엔시스 등 주요 6개사는 올해부터 1,700여 개 하도급 협력회사에 100% 현금성 결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국내 투자 사상 최대 6조 늘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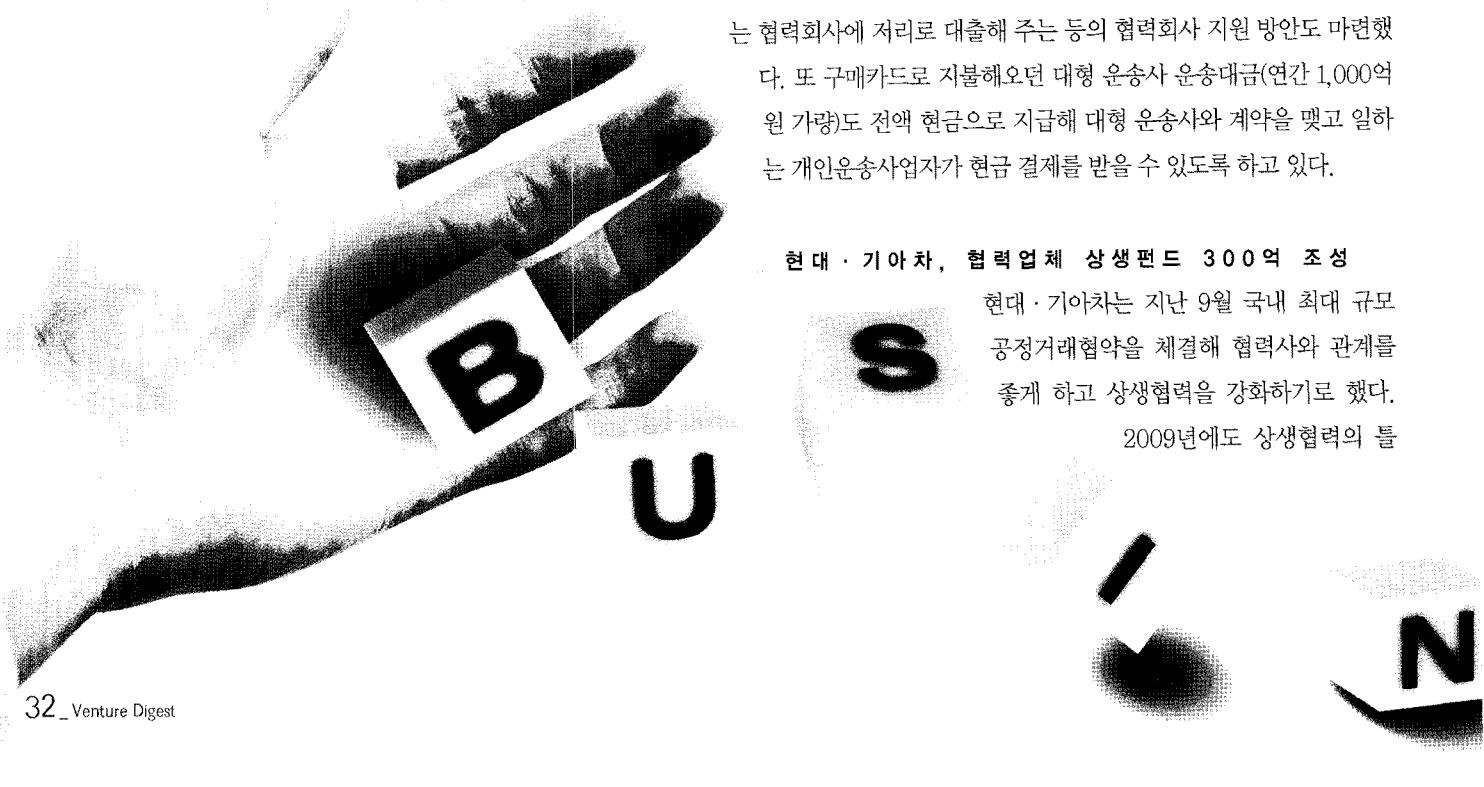
포스코는 올해 범 포스코 상생협력을 위해 국내 투자 규모를 사상 최대인 6조 원으로 늘린다. 이는 지난해(3조 4,000억 원)에 비해 2조 6,000억 원(76.5%)이 증가한 것.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성장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포스코는 그동안 포스코만 실시해 오던 협력회사 납품대금 전액 현금 지급을 전 계열사로 확대 운영하고, 기존의 4,000억 원 규모 중소기업 지원 펀드 외에 600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조성, 노후 설비를 교체하는 협력회사에 저리로 대출해 주는 등의 협력회사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또 구매카드로 지불해오던 대형 운송사 운송대금(연간 1,000억 원 가량)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 대형 운송사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운송사업자가 현금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상생펀드 300억 조성

현대·기아차는 지난 9월 국내 최대 규모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해 협력사와 관계를 좋게 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09년에도 상생협력의 틀





기술개발 전방이다. 상생협약에 참여한 원사업자는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10개사이며, 이들의 1차 협력회사는 2,368개 사 등 약 2,400개 회사에 이른다. 지금까지 협약체결 규모로는 원사업자, 협력회사 모두 국내 최대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의지와 공정거래 원칙 천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 도입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회사 자금과 기술 등 종합지원 대책 등이다.

또 현대·기아차그룹 단독으로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혁신 자립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하고 재무 건전화에 위해 기존에 진행해 오던 납품대금 100% 현금 결제, 무담보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론 외에도 100억 원 규모 친환경 자동차 연구개발비 무상 지원, 경영혁신을 위한 300억 원 규모 상생협력펀드 조성, 1,000억 원 규모 운영자금 신용대출, 경영혁신자금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펀드 300억 지원 등의 방안을 내놴다.

— 두산, 협력사 동반성장 위해 3,450억 조성

두산그룹은 지난해 11월 열린 '두산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선포식'에서 1,760개 협력사와 상생경영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두산은 이날 협약 체결에 따라 앞으로 합리적 단가 산정을 위한 계약 체결, 협력업체 선정·등록·운영,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2009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특히 3,450억 원 규모 네트워크론을 시행해 사내 협력사는 100% 현금결제와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 협력사 기술개발 지원과 보호, 교육 훈련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협력사 지원전담부서도 설치할 예정이다.

— SKT, 특별 재무 지원 방안 마련

SK의 상생경영 철학은 '파트너와의 행복 동반자.' SK텔레콤도 협력업체와의 실질적인 상생경영을 실천 중이다. SKT는 지난해 말 680여 곳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상당수 업체가 긴축 경영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에 따라 제작비 상승, 금융권 차입금 압박은 물론, 환율 상승으로 외산 장비와 부품 도입 비용이 증가 하는 등의 문제점이 조사됐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 협력업체의 경우 이 같은 자금 운영 압박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SK텔레콤은 이들을 위한 특별 재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자금위기가 닥치기 전에 사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에 따라 자금 시장이 안정되는 시점까지 SK텔레콤이 운영할 재무지원 프로그램에는 △구매대금 선 지급 및 중도금 비중 확대, △확정된 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발주 △자금으로 상담지원센터 상시 운영 등이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연말연시를 맞아 긴급자원이 필요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2008년말 62개 업체에 1,300억 원 상당의 계약조기 체결 및 계약선금금 등을 조기 지급했으며, 올해는 설 연휴를 맞아 23일까지 30여 개 업체 대상으로 400억 원 자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지난 7월부터 중소 벤처 협력업체의 창의적·혁신적 사업 제안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개방형 협력지원 IT시스템인 Open2U 사이트(open2u.sktelecom.com)를 운영 중으로, 이를 통해 채택된 우수 제안의 경우 개발비 지원 및 공동 사업화 추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생협력 모델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